

“황룡사 목탑 설계도면 만들자”

권종남 교수, 신라문화원 학술회의서 제안

197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8년간에 걸친 발굴 조사 끝에 조성 당시의 사격을 드러낸 황룡사지(사적 제6호). 이제는 연구 대상이라기보다는 역사 유적으로 더 친숙한 이곳에 대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소장 학자들이 있어 주목된다.

화제의 학자들은 10일 '황룡사의 제조명과 보존준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신라문화연구소의 제22차 학술회의에서 황룡사 목탑의 설계도면 제작을 제안한 권종남(세경대) 교수와 황룡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현역 전 경주시(당시 왕경·王京)의 모습을 추적한 박방룡(국립경주박물관 학예사) 박사.

이날 '황룡사 목탑의 건축제도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 권 교수는 "문헌으로만 알려진 목탑 가운데 유일하게 평면 규모와 층수 그리고 높이 등을 알 수 있는 계 황룡사 목탑"이라며 "황룡사 목탑의 설계도면을 그릴 수 있다면, 연구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한국 고대 목탑 연구에 시급

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이 정보들을 토대로 우선 시작해야 할 연구는 목탑의 구조 방식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 교수는 <황룡사지발굴보고서> 내용 중에서 신라 문성왕(839~856) 대의 기록에 주목했다. 여기에는 황룡사 목탑이 동북쪽으로 기울어졌으며, 목재가 부후해 30여 년이 지나도록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현대 건축에서도 그 견고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주사 팔상전, 일본의 법통사오종탑, 중국의 불교사 석가탑의 건축 방식을 연구하고, 황룡사 목탑의 구조 방식을 추론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흥 스님 등 당대 중국 유학승들이 황룡사 목탑 건설을 처음으로 제안한 만큼 문헌 고고와 같이 왕경의 남쪽에 있는 계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계의 석굴 건축 방식을 토대로 황룡사 탑의 특징을 추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종남 교수 ◇박방룡 박사

“황룡사 중심으로 도로-월성 등 배치”

박방룡 박사

목탑의 초석간 간격으로 처마의 길이를 역산하면 무려 4.7미터에 육박한다"며 "처마를 떠받치는 공포 역시 당대 사찰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공포였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라 왕경(지금의 경주)의 조성'과 '황룡사 창건'을 발표한 박방룡 박사 역시 "황룡사는 기존의 학술과 같이 왕경의 남쪽에 있는 계 아니라 그 중심에 있었다"며 "황룡사를 중심으로 왕경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황룡사지 남북도로 발굴은, 신라의 왕경이 황룡사의 창건과 함께 직선형의 도로가 건설되면서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유적이라는 것이다.

10미터의 너비로 확인된 왕경대로는 이 지역에서 유례가 없는 초대형 도로인데, 신라의 왕궁인 월성과 황룡사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다. 즉 황룡사는 왕경대로를 중심으로 월성과 마주보는 중요한 자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왕경의 남쪽이 아닌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박사는 <삼국유사>의 중악(中岳),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진산(鎭山)이라는 산 이름에 주목하고 "황룡사지와 인접한 남산이 '중악'이나 '진산'으로 불렸을 뿐만 아니라 황룡(黃龍)의 '황(黃)'은 오방위(五方位) 정중앙을 상징하는 말"이라며 "신라인들이 왕경 전체를 불국토로 보았을 때, 따라서 그 중앙에 있는 남산을 수미산과 같이 생각하고 사찰을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 해체 '착수'

보존처리실 등 건립 2007년까지 복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의 해체 복원이 착수됐다. 7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이 탑의 전면 해체 복원을 결정함에 따라 해체 뒤 복원을 위한 정밀 사진 촬영과 실측 작업을 마친 뒤 석탑 해체를 위한 가설 덧집과 석재 보관창고, 석재 보존 처리실 등을 이 달부터 짓고 있다.

석탑 해체는 이 같은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나는 내년부터 착수되어 2007년까지 복원 공사를 마치게 되며 이를 위한 총사업비로 80억 원

종교는 쇠퇴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와 비교해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종교적인 주장이 있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달 30일 바이문(美 시몬스대) 명예교수(본지 292호 16면)에 이어 이원규(가리신학대) 교수 역시 4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학술회의에서 '성(聖)의 복귀-종교 쇠퇴론의 세속화 이론'을 발표하고, "현대 종교의 성격과 기능을 설명하는 이론인 '쇠퇴이론'을 잘못 이해해 제도종교의 약화를 곧 개인 신앙의 약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쇠퇴이론이란 1960년대 이후 종교의 세속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종교가 쇠퇴하여 그 교세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종교개성은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즉 쇠퇴이론을 개인의 종교성에까지 확대해 오늘날 개인의 종교

“종교 쇠퇴론 잘못됐다”

이원규 교수 주장

신앙마저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 교수는 서점가의 베스트 셀러 목록에 고풍 요한 바오로 2세와 달라이 라마의 저술이 올라가고, 레코드 가게에서 명상용 음악 CD가 날개돋친 듯 팔리며, 할리우드의 영화대본에 종교 관련 이야기들이 끼여드는 현상을 들었다.

그렇다면 쇠퇴이론은 그 비판자들의 말대로 설도 없는 논쟁일 뿐이고 성(聖)은 복귀한 것일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종교는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인데, 성(聖)은 항상 인간 사회에 있었고 종교 또한 항상 인간 세계에 있어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⑦ 만공의 수덕사·부석사 편액



◇예산 수덕사 '백련당' 편액.



◇서산 부석사 '부석사' 편액.

백련당

유려하고 통쾌한 행서

부석사

담대한 기상 잘 나타나

주문의 방안 2과가 찍혀 있다. 백련당은 대웅전 우측에 청련당과 마주하여 자리한 7자형의 요당으로, 편액은 만공이 수덕사에 머물며 절을 중창하던 시기인 1934년에 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방필(方筆)로 통쾌(痛快)하게 써 내린 행서이다. 서산 부석사 심검당에 걸린 <부석사> 편액에는 '칠십옹(七十翁)'이라는 관직과 두인을 비롯한 '송월면, 만공(宋月面, 滿空)'이라는 도서가 있다. 나루곶이 드러난 티나루 액관의 가장자리를 파서 변죽을 대신 한 이 편액은 만공이 덕숭산 상장에 전할사(轉用舍)라는 피피를 짓고 지내던 1940년에 쓴 것으로, 아마도 그 무렵에 절을 중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강직(剛直)한 성격과 담대(膽大)한 기상이 잘 드러난 심후(深厚)한 필선의 행서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중 난징서 비천문 발견 전래루트 재조명 필요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로,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비천문(飛天紋)이 실크로드와는 관계없는 중국 난징(南京)에서 발견됐다. 난징에서 발행되는 <양자만보>에 따르면 350여 개의 석굴로 구성된 시사산 천불암 제102호에서 발견된 비천문은, 조사 결과 동황 막고굴의 제321호 석굴의 쌍비천문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음악의 신'을 뜻하는 이 비천문은 지금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지금의 신장(新疆)지역인 서역과 하서회랑(河西回廊)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와

오종욱 기자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 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크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크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크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크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해보시기를!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I.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II.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